

보도시점 5.14.(수) 조간 < 5.13.(화) 12:00 >

지역주도 혁신·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중소기업 정책 체계화 방안 논의

- 『지역혁신 라운드테이블』 개최, 지역거점별 신산업 인공지능(AI) 제조혁신 공급망 구축 및 미래산업대응과 지역 지속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방향 논의
- 민간 전문가,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 지역혁신 주체 참여, 지역 맞춤형 정책기획”의 내실화 및 성공적 이행을 위한 실질적 제언을 개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함께 13일(화) 스페이스웨어 서울역센터에서 『지역혁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초부터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 학계 전문가와 혁신적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지역거점별 신산업 기반의 인공지능(AI) 제조혁신 공급망 구축’과 ‘미래산업 대응 및 지속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집중 논의하였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복합적 구조 변화 속에서 지역의 자생력 확보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회의는 총 2건의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종합토론을 통해 지역 현장 중심의 다양한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에서 GIP 전략연구소 정종석 소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및 혁신역량 격차가 지속 확대되어 지방소멸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거점별 신산업 기반의 인공지능(AI) 제조혁신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소장은 이어 "국가정책의 초격차전략산업과 연계된 지역의 10대 미래 먹거리 산업에 속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말하면서, "인공지능(AI)기술과 10대 미래먹거리 산업 간 융합을 통한 혁신제조생태계 조성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약 3만개의 지역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중기부를 포함한 범부처의 예산과 정책수단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지역중소기업혁신팀 김상신 팀장이 맡아 '미래산업대응과 지역 지속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팀장은 "지역 중소기업은 지역 고용의 중심이며, 산업 생태계 유지와 균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방정부, 대학, 혁신 기관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 주도의 자립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의 혁신 역량 저하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대표기업(앵커기업) 육성을 위해 중기부 주도의 기업 성장 중심 정책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 역량 강화와 범부처 연계를 위한 정책 네트워크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 성장의 토대는 지역 경제의 회복에 있으며,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줄이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의 형성되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과 지역 중소기업 간 연계 전략의 중요성도 논의되었으며, 지역별 산업 특성, 인력 수급, 정주 여건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되었다.

노용석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인공지능(AI) 도입, 디지털전환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변화와 지역 특성과 산업 기반을 반영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후속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민간전문가 참여의 라운드테이블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역현장의 정책 수요와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주도의 중소·벤처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지역기업정책관 지역혁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상규 (044-204-7570)
		담당자	서기관	김재현 (044-204-7571)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참고 1**2025년 지역혁신라운드테이블 개요****1. 회의 개요**

□ (일시) '25. 5.13.(화) 14:00~16:00 (120분 내외)

□ (장소) 스페이스쉐어 서울역 센터

* 서울 용산구 후암로 107 게이트웨이타워 2층

□ (참석) 라운드테이블 분과별 주제발표자, 산업계·학계 전문가 등

구분	참석자
주제발표	GIP 전략연구소 정종석 소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지역중소기업혁신팀 김상신 팀장
전문가	지역 중소기업 정책 관련 학계, 산업계, 연구계 전문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 주요 논의주제

❶ 지역거점별 신산업 AI제조혁신 공급망 구축

❷ 미래산업대응과 지역지속성장을 위한 지역중소기업지원정책 제언

3. 세부일정(안)

구분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주제 발표	14:00~14:05	참석자 소개	
	14:05~14:25	지역거점별 신산업 제조혁신 공급망 구축	GIP전략연구소
	14:25~14:45	미래산업대응과 지역지속성장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제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자유 토론	14:45~16:00	전문가 제언, 정책방향 논의 등	참석자

□ 현황 및 이슈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및 혁신역량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비수도권 지역제조업체의 AI 활용 역량 및 여건 미흡
- ⇒ 지역별 산업 DNA, 인프라,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한 AI 융합형 제조업 혁신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전략

□ 정책 제언

- ◆ AI기술과 10대 미래먹거리 산업 간 융합을 통한 혁신제조생태계 조성
- ◆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3만개 지역중소·벤처기업 집중 육성
- ◆ 지속가능한 범부처 정책수단을 집중 투입 필요

① 대한민국 지역×산업 육성 생태계 고도화

- 60개 지역주력산업(주축산업 41개, 미래신산업 19개), 43개 규제자유 특구의 주요 산업을 분석, 10대 중점분야를 선정 후 전략적 지원

② AI융합을 통한 지역제조핵심산업 고도화 및 핵심인재 양성

- 3대 제조 강국 달성을 위한 中企 4만개를 육성하여 AI로 대전환
- AI 기술의 활용·확산을 위한 수준별 인력 공급·양성 지원

③ 창업-성장-도약 선순환 생태계 맞춤형 기업지원 강화

- (창업) 지역 창업 활성화를 통한 자립형 생태계 조성
- (성장) 지역중소기업 성장 플랫폼 체계 마련
- (도약) 미래신산업을 통해 중소→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

④ 지역혁신성장 인프라 확충

- 지역거점기관으로서 테크노파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 인력유치 및 장기근속을 위해 지역인재 정착 인프라 조성
- 지역주력산업 및 중소기업정책 개발을 위한 지역정책연구기능 확대

□ 현황 및 이슈

- 지역 중소기업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과 수도권 격차 지속,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 및 기업의 혁신역량 부족

⇒ 디지털 전환, 지역소멸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정책 제언

◆ 지역주력산업기반 성장생태계 조성 및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체계 구축

◆ 지역 중소기업 혁신 역량강화와 범부처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확립

①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 마련

- 지역이 원하는 신산업을 미래성장기반으로 육성하고, 대학 캠퍼스 등에 연구인프라를 갖춘 중소기업 혁신공간을 조성
- 지역 성장을 이끌 지역 제조유니콘과 벤처·스타트업 집중 육성

②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지역 중소기업이 수도권 기업과 상응하는 경쟁력을 갖추수 있도록 AI서비스, 레전드 50+ 개편, 지역 중소기업 육성 기금 마련 등 필요

③ 지역 소멸 대응 및 위기 극복지원

-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부처간 협력 체계를 확대하고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해 인재유치 및 인력확보를 위한 인프라 조성
- 뿌리기업 등 지역기반산업기업의 성장 및 위기극복 여건 마련

④ 지역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 라이즈 체계를 활용한 지역 대학과 지역 거점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테크노파크와 지방중기청의 역할 강화